

전남 민관협력 공공배달앱 ‘먹깨비’ 출시

가맹점 가입·광고비 없어

중개수수료 1.5%만 부담

김 지사 “착한소비 실천 기대”

전남도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영업이익, 소비자는 착한소비’를 비전으로,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을 출시했다.

전남도는 14일 목포역 광장에서 김영록 지사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공공배달앱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배달앱 성공기원 도민 영상메시지, 개회사, 업무협약, 배달주문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출시를 기념해 1만원 할인쿠폰(선착순 7,000명), 매주 토요일 3,000원 할인 쿠폰(선착순 300명), 더블 할인(가맹점 할인+도 지원) 최대 4,000원, 1,000원 포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의 이벤트를 마련했다.

전남 공공배달앱은 민간업체 ㈜먹깨비에서 앱을 개발·운영하고,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비 없이 1.5%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앱 이용 소비자는 쿠폰, 이벤트 등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소비에 동참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전남도는 공공배달앱이 코로나19,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 집체한 상권 회복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가맹점을 모집해 현재 3,000곳을 확보했고, 올해 말까지 가맹점 6,000곳을 모집해 음식배달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앱 서비스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선 가맹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객 콜센터와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처리해 고객 불만을 즉시 해결한다.

또 보다 많은 도민과 소상공인 등이 앱을 통해 혜택을 보도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2023년까지 전통시장 장보기와 로컬푸드·생활용품 배달서비스를 추가하고, 2024년까지 일자리, 관광 등 지역원을 활용한 지역 종합플랫폼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민도 디지털 문화 혜택을 누리도록 도내 가맹점을 1만곳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김영록 지사는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전남 공공배달앱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함께 착한소비 실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공공배달앱 가맹점 신청은 먹깨비(www.mukkebi.com) 누리집이나, 업주용 ‘먹깨비 사장님’ 앱을 통해 받는다. 먹깨비 고객센터(1644-7817)에서 전화 신청도 받는다.

소비자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전남 공공배달앱’이나 ‘먹깨비’를 검색해 앱을 내려 받은 후 사용하면 된다. /오선우 기자

전남 인재육성 평생교육 홍보

제1기 대학생홍보단 본격 운영

전남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홍보를 위해 꾸려진 ‘제1기 대학생 홍보단’이 본격 운영에 나섰다.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4일 “진흥원 배움마루에서 전남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에 대한 누리소통망(SNS) 홍보 역할을 할 제1기 대학생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한 대학생 홍보단은 8명이며, 위촉 기간은 2023년 3월까지다. 활동기간 전남의 장학·인재육성·평생교육 콘텐츠를 발굴해 누리소통망으로 제작·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또 진흥원의 공식 행사와 정기 간담회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기능도 함께한다.

대학생 홍보단에게는 월별 미션 수행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와 기사 작성에 따른 원고료가 지급된다. 홍보단이 제작한 콘텐츠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소통망에 게재되며, 우수작은 분기별로 발행하는 뉴스레터 웹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선우 기자

무안공항 국제선 재개

20일부터 국내 항공사 운항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2년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쯤 베트남 나트랑으로 향하는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을 출발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운항이 중지된지 2년4개월여 만에 재개다.

이날 첫 운항이 진행된 항공기는 베트남 소속 항공사의 전세기로 부정기 노선이다. 무안국제공항에서는 7월 중 모두 4개 항공사가 40편의 국제선(출발 20편·도착 20편)을 운항한다.

오는 20일부터는 국내 항공사 소속 비행기가 베트남 다낭 등의 노선을 운항할 방침이다. 해당 항공사는 국제선을 정기 노선화해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노선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운항 승인을 받아 해당 노선을 계속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항공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국토교통부에 운항 승인을 매일 받아야 하고, 국토부는 질병청과 협의를 통해 운항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오선우 기자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왼쪽 네 번째)이 14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PRE-명품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해 선정된 기업에게 지정서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명품강소기업 7곳 선정 2년간 연구개발·사업화 등 지원

광주시는 지역 경제를 견인할 ‘2022년 예비(PRE)-명품강소기업’ 7곳을 선정하고 14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제6기로 ㈜텐바이오, ㈜텐퍼스, ㈜승광, ㈜전진티티에스, ㈜하이름,

한국광학기술주, 21세기메디칼주이다.

선정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된 예비(PRE)-명품강소기업은 지정기간 2년 동안 기술력 확보를 통한 신속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과제 기획, 신기술 사업화, 공정개선, ‘사회가치 경영(ESG 경영)’ 준비 등 기업 성장 목표와 성장 수준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는다. 또한, 시와 중소벤처기업청, 광주테크노파크, 신용보증기금 등 23개 기업지원 유관기관 등의 협으로 지원사업 연계, 기업에 로사향 공동해결, 경영, 기술, 자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길용현 기자

전남도, 코로나 재유행 선제 대응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강화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14일 22개 시군 안전 업무 부서장과 긴급 방역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핵심 방역

수칙 실천 등 현장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철 이동량 증가, 면역 효과 감소 등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한데 따른 조치다.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 추세 속에 전남도에선

최근 1주일간 총 3,987명, 1일 평균 570명이 확진됐다. 확진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 6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미접종자 3차 접종·60세 이상 4차 접종) ▲비누로 30초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코로나19 증상 시 신속한 진료 및 타인과 접촉 최소화 ▲1일 3회 이상 환기 등 5대 개인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확산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인 방

역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감염 취약시설, 여가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과 가뭄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전남도와 시군은 무더위 쉼터 운영, 취약계층 관리, 비상근무 등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태풍·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해피해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과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오선우 기자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다시 기로’

▶면에서 계속

민·관·정 위원회가 권고한 생태 시민호텔 건립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현재 생태 시민호텔을 두고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익성이 불투명한 호텔 운영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9년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공의 차원에서 매입한 해남 땅끝 호텔은 수년 동안 10억원 안팎의 적자에 허덕이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한옥 호텔인 여수 오동재와 영암 영산재도 개장 이후 매년 적자를 보며 매각이 추진됐다. 이들 호텔은 지난 3월 민간에 팔렸지만, 전남도는 운영 손실 등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제시한 활용방안은 용역 결과나 의견 수렴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문화·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어 시민이 쉽게 접근해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대학 도시계획과 A 교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의 여론이 왜곡되지 않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와 시민회도 필요하다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의 정비, 조례 개정 등에 나서 사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81년 무등산 장원봉 인근에 3층급으로 들어선 신양파크호텔(부지면적 4만993㎡·건축물 1만5,682㎡)은 국내·외 귀빈들이 묵는 광주의 대표 호텔이었으나 시설 노후화와 수익 악화로 3년여 전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2020년 10월 신양파크호텔이 폐업한 자리에 고급 빌라가 들어서려 하자 광주시는 민·관·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유화를 결정했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지치시대를 선도하는 통합시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본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

제 11일은 인구의 날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
가 함께 합니다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병성 302-0316-649511